

# 우리시대 남녀간 애정의 갈등과 파행

민병삼 장편소설 「그 여름 날개 내리다」

“신조차 외면하고 있을 이 척박한 땅에서 작가는 무엇을 써야 하는가?” 스스로를 향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내놓았다는 민병삼 씨의 첫 장편소설 「그 여름 날개 내리다」(서연)를 읽으며, 바로 그 ‘땅’에 사는 독자는文學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해야 하며, 또 할 수 있는 가라는 생각을 했다.

일상에서 갖가지 규정과 한계에 부딪히며 사는 독자들이 작가에게 구태의연한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일까.

그러나 이 소설은 근자에 읽은 몇편의 신간 소설들과 아울러 독자인 나에게 ‘기대를 갖지 말라’는 대답만 들려줄 뿐이었다. 스토리 전개와 통속성이나, 우리시대 작가들이 지니는 강박관념 혹은 채무의식이라 해도 좋을 ‘운동권’의 문제로부터 철저히도 자유롭지도 못한 점 등이 그러했다.

다양한 형태의 男女관계를 통해 남녀간의 애정의 참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작가의 의도였다면, 그 다양성에 있어서 이 소설은 일단 성공을 거두고 있다. 복수를 꿈꾸는 민철을 둘러싸고 친구 동생 경미와, 복수 대상이 될 집안의 손녀딸 주희가 엮여가는 애정의 갈등이 첫째 형태이다. 다음으로는 운동권 학생인 진우와 그를 사랑하는 공무원 집안의 딸 혜진과 프롤레타리아를 자처하는 정은, 애정이 없이 결혼한 흥정만과 카페 여주인 수비, 그리고 민철의 어머니 김권사와 그를 겁탈하여 민철을 수태시킨 흥회장과의 관계 등이 작가가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 설정한 열개이다. 그리고 작가는 이러한 등장인물들을 또 다른 인연으로 다시 열기설기 엮어 먼저 짜여진 열개위에 덮어씌우는것으로 소설을

이끌어 가고 있다.

그러나 작가는 이 다양한 형태의 관계들 가운데 어떤 것에서도 진실의 승리를 보여주지 않는다. 그만큼 이 시대 남녀간의 애정의 파행성과 비극성을 보여주려고 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러고자했다면 작가는 좀 더 새롭고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장치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주희와 민철의 결혼이 그들의 혈연관계가 드러남으로써 파국에 이르는 것도, 진우의 비윤리적인 행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혜진도, 불륜의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비의 결별선언도 애정의 비극성을 통속적이지 않게 그려내는 데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 소설에서 느끼는 또 하나의 아쉬움은 인물들의 상투적인 전형성이다. 물론 소설에 있어 인물의 전형성이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완벽한 남자’, ‘미모와 재능을 겸비한 여자’, ‘과격하고 무례한 운동권 사람들’ 등의 상투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작가의 가치관의 ‘박제품’을 보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게 한다.

물론 젊은이들이 애정문제로 겪는 내면적 갈등에 대한 탁월한 심리묘사와 속도감 있는 문체 등의 장점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책의 뒷장을 덮으며 나는 또 한번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독자는 요구할 수 없단 말인가?”

정경아

동작구 사당4동 296-7. 회사원

# 절망적 세계를 향한 외침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

부서진 건물과 장대비에도 좀체로 씻겨지지 않는 화학냄새로 가득찬 전장의 공포와 허탈이 아닌, 다분히 정신적이고 추상적일 수 있는 패전국 일본의 전후상황은 가시화되지 않은 결과의 불안감으로 오히려 그 황폐함이 극에 달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 일본을 시대적 배경으로 삼아 씌어진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는 군국주의라는 절대적인 ‘신앙’의 붕괴와 패전이라는 힘겨운 명예를 겹으로 짚어진 일본의 젊은세대를 단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다. 명상서적번역을 줄곧 해온 시인 안재찬씨가 옮긴 이 책은 이미 1976년 국내독자들에게 ‘맛보기’로 읽힌 전력이 있기도 하다.

국내에서는 마약과 성의 과격적인 장면묘사가 빌미가 돼, ‘금서’처리 되었지만 일본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아쿠다가와상을 수상한 작품이라는 단순한 측정에 의해서도 이 소설의 문학성에 대한 평가는 가름될 것이다. 발표 당시 문단과 사회에 충격파를 던지며 화제를 뿌렸던 이 소설의 작가는 그 완성도에 견주어 본다면 너무나도 의외의 인물이다. 기성문인도 문학청년도 아닌 무명의 화가지방생이었기 때문인데, 자신과 동명의 화자를 내세운 그는 자전적인 혐의가 짙게 깔린 어투로 미군기지촌 변의 소외된 젊은이들의 정신적 갈등을 치밀하고 섬세한 손놀림으로 그려내고 있다. 여기에 작가가 그 젊은이들에게 주는 선물이 다름 아닌 마약과 최고의 절정을 가능케할 性的 유희다.

그러나 그들의 빈 구석을 채워주는 마약과 집단성행위 등은 적나라한 표현의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권태롭기 짝이 없다.

흑인병사와의 원색적인 성행위나 그 행위를

그대로 표출해내는 묘사의 과격함이 불러오는 구토 때문일까. 그렇기 때문에 마약주사를 위한 일회용주사기의 바늘 끝에 맺힌 핏방울에서 전장의 피비린내가 진동함을 느끼게 된다.

화자인 류 역시 걱정의 룩큰롤 음악과 쾌락의 극치 속에서도 반복해서 일탈을 꿈꾸며, 하나의 탈출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절망적인 세계에 의해 치명상을 입은 그들과, 그들을 지켜보는 우리에게 남겨진 상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검은새와 나방 그리고 ‘투명에 가까운 블루’로 빛나는 유리파편에서 상징되는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理想은 투명하지 않은 외침이 되어, 다시 돌아온 ‘금서’ 읽기의 즐거움에 끼어든다.

이은숙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우성아파트 6동 105호

## 中國圖書 全分野 企劃執筆

- 한·중출판정보학회
- 한·중번역저술학회
- 현대중국학술정보센터

代表: 黃秉國

주소: 서울 양천구 목동 APT 10단지 31동 앞 TEL: 645-7052

## 技術革新의 經濟學

前科學技術處 次官 權原基 記  
現 浦項工大教授

값 6,500원

兼知社

서울 마포구 서교동 375-13 TEL: 335-1985·1986

# 진정한 자유를 향한 미로의 추적기

이청준 장편소설 「自由의 門」

이청준의 화려한 수상경력에 또 하나의 꼬리표를 달게 해준 작품이 바로 「自由의 門」이다. 부제 '한 추리작가의 실종에 관한 추측'에서 엿보이듯이 작품전개는 미스터리컬하게 펼쳐지고 있어 추리소설을 읽는 것 같은 긴장감을 독자에게 전해준다. 산노인을 통한 종교적 삶의 방식과 세번째 추적자, 주영섭이라는 소설가의 문학적·현실적 삶의 방식 사이에 自由의 門은 놓여 있고, 글을 읽는 이들은 미로를 헤매는 것처럼 그 門을 찾아가는 것이다.

소설의 시작은 주영섭이라는 소설가가 세속과 인연을 끊고 지리산에 은거해 사는 백산도노인을 방문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주영섭은 우연히 신문 사회란을 통해 두개의 사건에 대해 알게 된다. 한 사건은 비밀경찰시대에서 일어난 강도상해사건으로, 범인은 곧 잡혔는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범인 최병진은 현재 중학교 생물교사라는 의외의 직업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교사라는 것 이외에 그의 사생활이나 이전의 행적에 대한 일체의 것은 아무 것도 알 수 없었다.

흔히 그렇듯 이 사건 역시 잠깐 동안 세상의 관심을 끌다가 사라지려 하는데, 「주간서울」의 양진호 기자가 이를 추적한다. 그러나 그는 곧 실종된다. 두번째 사건은 앞의 사건이 발생한 후 2년쯤 뒤, 인천 향만부두노조지부 사무실에서 일어난, 유민혁이라는 과거를 알 수 없는 인물의 자살사건이다. 그는 부두 하역노동자 중의 한 사람으로 그의 죽음 역시 의문투성이다. 노조와 관리자 사이의 신경전에서 그는 자신의 피를 계물로 바쳤던 것이다. 유기자의 동료인 구형사는 이 사건과 첫번째 사건과의 유사성을 발견 - 신분이 불확실한 점, 예수교 신도라는 점, 현재의 삶을 神 앞에서만

고하고 싶어하는 비의적 계율서의 냄새 등 - 하고 사건을 추적했으나 그 역시 실종된다. 그가 실종되기 전, 소설거리를 찾아 구형사를 찾아온 영섭을 만난 자리에서 사건해결에 대해 암시적인 말을 남겼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 영섭이 직접 그 미로를 찾아 나서 백노인 앞에 서게 된다. 백노인은 전쟁 중에 교회와 인연을 맺어 한때 신학교를 다녔던 사람으로 주님의 옳은 소명을 구하고 몸소 실천하기 위해 새 이름으로, 새로운 인간이 되어 새 삶을 시작한다. 그러다가 우연찮은 사고에 휘말려 신앙의 계율과 인간적 증거육의 갈등을 더이상 속세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깊은 산속을 택해 은둔한다. 두 실종자는 백노인이 끝내 버리지 못한 진실을 증거하고자 하는 욕망의 희생물이 된 것이다.

작가는 영섭의 소설적인 삶과 백노인의 신앙적 삶의 갈등에서 이 둘이 다 현재와 내세를 망라한 인간자체의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자유 의 문. 문이라는 것은 벽처럼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손만 내밀어 밀면 열리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문은 스스로 손을 내밀기까지 결코 열리는 법이 없기 때문에 작가는 자유를 언급하고, 자유인의 삶을 이야기한다. 특히, 마지막 대목에서 작가로서의 자기위치를 재확인하고자 하는 작가의 아픈 자전적 흔적들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 글을 읽는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 같다.

## 손이숙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미성APT 11-1012 · 학생

# 현대과학의 첨단이론을 만화화

「만화로 보는 現代科學의 세계」

장엄한 대우주의 역사에 비한다면 300만년 정도밖에 안되는 인류역사는 얼마나 짧은가. 그러나 짧은 역사를 가진 인간이 바라보는 우주관은 지구에서 태양계로, 또 태양계를 벗어난 은하와 그것이 모여 이뤄진 광대한 우주로 점차 확대돼왔다. 21세기의 현대인에게 우주는 이미 공상과학의 세계가 아니다. '자아'라는 존재의식에 뿌리를 내리는 철학의 근거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 시리즈는 현대과학의 범주 속에서 현대인에게 가장 편안한 '만화'의 형식으로 인간의지의 확장과정을 체험케 하고 있다. 「천문학 이야기」, 「블랙홀 여행」, 「상대성의 세계」의 3권으로 이어지는 이 시리즈에서 '천문학의 역사'를 첫권으로 한 것은, 한 개인으로부터 전우주까지 인간인지의 확대를 잘 나타낸 때문인 듯하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주장은 기존의 인식과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온 일종의 혁명이었다. 뉴턴은 행성운동의 법칙을 연구함으로써 새로운 우주관을 탄생시켜 20세기까지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다. 그러나 우주에 절대공간과 절대시간이 존재한다는 뉴턴의 역학과 체계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 등장하자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했다. 여기엔 우주팽창에 관한 암시가 들어 있었지만 아인슈타인 같은 대과학자조차 우주가 고정돼 있지 않고 변한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비약이었다보다.

「상대성의 세계」편에서는 우주의 시공간이 태양의 강한 중력에 의해 굴절된다는 일반상대성이론의 핵심으로 전개된다. 즉 우주는 수축과 팽창을 거듭한다는 사실이다. 우주팽창의 원인으로 제창된 빅뱅이론은 우주의 시작이자 곧 전 우주의 종말을 의미하는데, 행성폭발

직후 발생하는 중력붕괴는 블랙홀을 만든다. 20세기 과학의 최대신비인 블랙홀은 은하의 생성이나 우주의 보이지 않는 질량, 전파은하의 에너지 원천 등등 천체물리학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설명한다.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을 결합시킴으로써 새 지평을 연 스티븐 호킹의 미니 블랙홀이론은 이 시리즈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미니 블랙홀에서는 '미니세계에는 인과법칙이 성립되지 않고 불확정성이 개재한다'는 하이젠베르크의 기본원리를 포함한다.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철학을 떠올린다. 진공 속에서도 물질과 반물질이 생성소멸될 수 있다는 것은 곧 노자가 「도덕경」에서 말한 "물질에서 無가 생기고 無에서 有가 생겨난다"는 道의 개념과 일치하고 있다. 우주의 원리에 대한 관심은 곧 '생'의 본질, '삶'의 원천에 관한 물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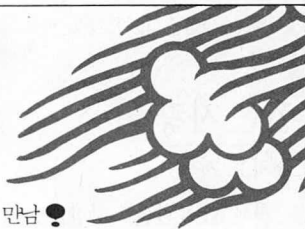
접근이 쉽지 않은 과학이론서에 질린 독자에게 이 시리즈는 우선 반갑다. 생소한 개념, 난해한 논리 전개, 어색한 번역을 무릅쓰지 않아도 좋을 '만화'라는 형식을 지니기 때문이다. 까다로운 이론을 너무 단순화시킴으로써 내용을 잘못 이해할지도 모른다는 예민함이 없다면, 과감한 생략과 핵심만의 내용 연결이 현대과학의 이론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내용의 '무게'가 형식의 '가벼움'을 짓누르지 않아, 과학에 대해 일정수준의 태도를 지닌 독자라면 충분히 만족할 책이다.

## 허운선

서울 · 노원구 월계동 삼호APT

출판기획

# 가보



여백과 신선한 아이디어와의 만남!  
하나에서 열까지 책임져드립니다.

표지디자인  
단행본편집 · 제작대행  
광고카피 및 디자인  
사보기획 · 제작  
기업체홍보물 (카탈로그등)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685-217  
TEL : 461-6681

# 단색 스캐너

## 寫眞製版

— 전문메이커 —

- ◎ 즉석, 포시, 네가가격으로
- ◎ 선명하고 깨끗한 사진 작업
- ◎ 읊새인쇄, 본문~표지까지

進光文化社

TEL. 265-4726, 266-2091  
주소 : 중구 충무로 5가 2-23



Illustration and Design

- 표지디자인
- 일러스트레이션
- 편집디자인
- 로고/심볼제작
- 광고기획제작

아이앤디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2가48-20  
경구빌딩 601호 Phone/277-8721